

Daily News

11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24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가이스너 효과'로 급반등 [다우: 8,046.42pt (+ 6.54%)]	장후반 '가이스너 효과'에 고무돼 지난 이틀간 급락 장세를 마감하고 급반등에 성공했음. 지속되는 실물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티모시 가이스너 티모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차기 재무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을 안도시키며 지수 폭등.
유가 소폭 반등 [WTI: \$49.93 (+ \$0.51)]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는 29일 이집트에서 유가 폭락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현재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내달 17일 알제리 회의까지 감산 결정을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음.
APEC 정상들 "금융위기 18개월이면 해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2010년 중반쯤이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개국 APEC 정상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성명을 통해 "이번 금융 위기는 18개월이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미 긴급하면서도 이례적인 금융시장 안정책과 경기부양책을 꾀했다"고 밝혔음.
씨티, 회생책 `잰걸음`..배드뱅크 설립 검토	위기에 휩싸인 씨티그룹이 위험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이와 함께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중.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씨티그룹이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 미국 정부와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
中 "수출의존도 낮추고 투자 확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수출 수요가 줄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5,860억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 저임대료 주택, 인프라스트럭처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기계류 투자 등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방침.
유럽 증시 사흘째 하락..`침체 공포`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로 진화된 경제 우려가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이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가 4분기 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영국 FTSE100 지수는 3,780.96으로 전일대비 2.4% 하락. 프랑스 CAC40 지수는 2,881.26으로 3.3% 하락. 독일 DAX30 지수는 4,127.41로 2.2% 하락 마감.

제목	주요 내용
BOJ "추가 금리인하, 자금시장에 문제 유발"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라카와 총재는 이날 BOJ의 금리 동결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금리는 충분이 낮으며, 추가 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공급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 그는 "글로벌 경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조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
신용보증기금 5,000억 원 규모의 CBO발행	100개 중소기업 및 13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차로 5,000억원을 발행한 후 연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
한중일 통화스왑 확대 '초읽기'	오늘 26일 일본에서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통화스왑 윤곽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힘.
4분기 40억불 무역흑자 예상	글로벌 실물경기 위축으로 수출경기가 악화되고는 있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거승로 예상
침체장서 국내 증권사 순익 1.7조 급감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권사의 순익은 2조원 가까이 급감했으나 외국계 증권사는 순익이 소폭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